

Korean A: literature – Higher level – Paper 1
Coréen A : littérature – Niveau supérieur – Épreuve 1
Coreano A: literatura – Nivel superior – Prueba 1

Wednesday 10 May 2017 (afternoon)
Mercredi 10 mai 2017 (après-midi)
Miércoles 10 de mayo de 2017 (tarde)

2 hours / 2 heures / 2 horas

Instructions to candidates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.
-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**[20 marks]**.

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.
-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'examen est de **[20 points]**.

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.
-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**[20 puntos]**.

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:

1.

흐르는 북

(중략) "뭐야, 이놈의 자식. 네가 나를 혼계하는 거야!"
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,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. 옆에 있던 어머니의 섯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.

"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."

5 "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.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
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."

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, 되려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.

"네가 알긴 뭘 알아.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."

"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, 안팎에서 듣는 그말에 물릴

10 지경이거든요. 너는 아직 모른다.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보라..... 고깝게 듣지
마세요.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,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
않습니다. 그런 뜻에서,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
뿐더러, 옳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,
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.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

15 그걸 누르는 데 대한,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
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,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.
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,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
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.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기질에 철저하여
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,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."

20 "그래서?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?"

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.

"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.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뺀 건, 할아버지의
한(恨)을 배가시키고,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
있습니다."

25 방 안의 민 노인이,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건 그때였다. 자기 때문에 성규가
궁지에 몰려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,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
싶지 않았든지, 민 노인 쪽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썩 질렀다.

"건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.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
않을 줄 알아."

30 제 방으로 돌아가던 성규는, 민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재빠른 웃음을 보냈다.
음모꾼끼리의 신호 같았다.

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는 지 일주일쯤 후였다. 저녁 준비를 하다
말고, 성규의 친구로 짐작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송 여사는, 대뜸 신음으로도 착각할
만한 의식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펄쩍펄쩍 뛰었다.

35 "뭐라구? 우리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구. 언제 어디서. 지금 어딤어?
이 일을 어찌지. 이 일을 어떡한다지."

송 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,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
밖으로 뛰쳐 나갔다. 황급히 서두르다 지갑을 안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
때, 민 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매달리는데도, 누구 신경질만

40 돌구느냐는 투의 외마디 말을 남기고 사납게 문을 닫았다.

"난들 아니, 가봐야지."

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던 눈이 사뭇 비뚤어져 있었다고 느낀 민 노인의 가슴에도,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걸 의식했다.

45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.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. 민 노인은 수경이를 시켜,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조금씩 훌쩍거렸다. 얼마나 지났을까. 취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, 민 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꺼안고 북채를 잡았다. 똑 딱 등 등, 등등등 똑 딱.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,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을 교대로 쳐다보고는, 그전 모양 궁상맞다는 타박을 하지 않았다. 오히려 다소곳이 민 노인 옆으로 다가앉으며 영똥깡똥한 질문을 했다.

50 "할아버지 이 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"
"수경아, 너 오래비가 붙들려간 게,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."
등 등 등 딱 딱.

55 "무슨 상관이 있겠어요. 아니에요.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. 오빠와 저와는 네 살 터울이거든요.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,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.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?"

"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¹을 닮은 것 같아. 역마살과 데모²는 어떻게 다를까."

60 딱 등등 딱.
"할아버지.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제 말은 들은 등 만 등 하구요."
손녀의 새살거림을 한옆으로 제쳐놓으며, 민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더 크게 북을 두드렸다.

최일남 <<문학사상>> (1986)

¹ 역마살: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는 팔자

² 데모: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집회

2.

슬픔이 기쁨에게

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.
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.
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
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
5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
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.
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
단 한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
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
10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
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
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.
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.
15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
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
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.
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
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.

정호승 <<슬픔이 기쁨에게>> (1979)